

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



강릉시의회

『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』

2018년 2월,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랑스런 강릉의 딸 심석희 선수는, 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, 쇼트트랙 여자 3,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고향 강릉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.

그러나 최근, 당시 일어났던 폭행 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왔을 뿐만 아니라,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경부터 약 4년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,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, 지금 전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.

특히,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이자 한 여성으로서,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걱정하며 최근까지도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내해왔다라는 사실은, 진정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미안함마저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.

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, 그간 심석희 선수가 겪었을 말 못할 고통과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,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결단을 응원하면서,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해 왔던 폭력행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.

- 정부는 체육계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
- 검찰은 철저한 진상 조사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.

2019년 1월 21일

강릉시의회